

경제 인구 참여도시 3대 구상으로 도약 실행력 높일 것

본보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정책이나 경력을 소개하고 싶은 출마자는 이메일(jmaeil@hanmail.net)로 보내주면 지면이 허락하는 한 게재해드릴 예정입니다. 인터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보는 출마자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제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남원시장에 출마한 양충모 전 새만금개발청장입니다.

Q. 후보자 본인을 소개해 주세요

- 남원시 송동면에서 출생한 남원중학교 32회 졸업생으로 전라교 연세대 경제학과를 거쳐 서울대 행정학석사, 미국 듀크대 공공정책학 석사, 가천대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 다양한 행정경험과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제34회 행정고시 재정직렬에 합격하여 1991년부터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경제예산심의관 1급 재정관리관을 역임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차관급인 새만금개발청장을 맡아 지역발전과 행정기관을 이끈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지난해에는 전북대학교 교수로 선임되어 33년동안의 공직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Q. 이번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 국가예산을 다루었던 경제전문가로서 공직 생활에 대한 충분한 만족을 하고 있었으나, 이후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서의 요청으로 지방정부에서도 근무를 하면서 지방분권시대의 자치행정에 대해서도 많은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가예산을 총괄하면서, 제 고향인 남원에 대해서는 항상 애정을 가지고 있어서, 예산 문제로 기획재정부를 찾는 남원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주기 위해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근무를 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 남원에는 역사와 문화, 관광, 농생명 산업자원과 함께 다른 지자체가 갖지 못한 지리산과 섬진강을 품에 안고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경제자원이거나 지역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변명과 재정지원을 이끌어내고, 내부적으로도 일정부분의 변화와 혁신을 가져온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진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과 역량으로 내 고향 남원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새로운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 후보 본인이 강점으로 내세우는 부분은?

- 저는 오랫동안 기획재정부에서 일하면서 숫자로 말하고, 결과로 책임지는 치열한 경제 현장에서 일해 왔습니다. 이제 남원은 정치를 잘하는 시장이 아니라, 경제를 제대로 아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제가 IMF위기 당시 노동예산을 담당하며 실업대책을 제시했던 공공근로사업은 용기를 잃은 시민들에게 희망을 되살리고 이제는 모든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주요 복지사업으

정치를 잘하는 시장 아닌 경제를 잘 아는 시장 필요 남원 발전 방향은 '경제 시민주권시대 열어갈 것'

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먼저 생각한 정책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지는 직접 느끼게 되는 정책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제가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정책 수립의 기본정신이 되었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Q. 기획재정부 등 공직생활에서의 활동을 소개해 주세요.

- 저는 경제를 통해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정을 평생의 과제로 삼아온 공직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부처이자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예산편성, 재정관리, 정책조정 업무를 담당하며 수많은 국가 프로젝트의 기획과 집행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숫자로 말하고, 결과로 책임지는 행정이 무엇인지를 현장에서 체득해 왔습니다.

이후 과장과 국장으로 재직하며 노동·청년·보후 예산 기후변화 대응, 서비스산업 활성화 연구개발(R&D) 예산 조정 등 다양한 정책 분야를 담당했습니다.

경제예산심의관 재직 시에는 국가균형프로젝트 예산 조정과 일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재정관리관으로서는 급격히 증가하는 재정지출에 대응해 국고관리 개선과 중장기 국가재정전략을 수립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책임성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지방정부 운영에서도 재정 책임이 왜 중요했는지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재직하며 약 2개월 동안 새만금 개발을 실질적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새만금 2단계 개발기 본계획을 전면 재정비해 비전을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설정하고, 민간 중심의 기존 계획을 실행 가능한 재정사업 중심 계획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동서도로 개통 주요 인프라 확충, 그리고 약 5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라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Q. 후보 본인과 출마지역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 지금도 고향 분가에는 부모님이 생활하고 계시고,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호남출신임을 감추지 않고 남원사람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생활했습니다.

저는 남원에 내려와서 지역을 알기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중앙에서 일하면서 늘 남원을 고민해왔습니다. 서울에서는 남원 출신 공무원 모임인 남공회 회장을 맡아 고향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고, 교통포럼 남원지회장으로 지역 역사와 미래를 고민하는 토론 활동도 계속해 왔습니다.

Q. 출마지역의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 저는 출마선언을 통해서 밝힌 바 있지만, 우리 남원은 도시의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인구, 재정 공동체 약화의 3중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은 줄어들고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남원관광단지에서 설치된 모노레일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판단착오로 수백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고, 시장은 종합청렴도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며 신뢰를 잃어버린 남원시의 행정은 시민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마저도 종합청렴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총체적 난국인 것입니다.

Q. 남원의 경제를 살리고, 잘사는 도시로 부흥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 제가 가장 선행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인구소멸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입니다. 인구정책은 출산장려, 정주여건의 개선 등을 다루는 복지정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인구도시'라는 경제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남원으로 향하는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체류형 주택단지 건설, 체험관광 등을 통해 생활인구 증가를 유도하는 인구정책의 전환으로 도시의 활력을 되찾아 갈 것입니다.

성공하는 도시는 좋은 일자리가 사람을 부르는 도시입니다.

남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기업유치와 성장산업 발굴을 통해 남원 인에서의 일자리를 늘려나갈 것입니다.

Q.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은?

- 남원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국가예산과 정책지원을 남원으로 가져와야 할 막중한 자리이기에, 남원을 잘 알고 있다는 정도의 지엽적인 역량 정도로는 잘 해낼 수 없습니다.

국가예산과 정책지원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우위를 찾아 낼 수 있는 정책적 판단, 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치 경제 분야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필요로 합니다.

중앙정부에게는 국가의 균형발전, 공공의 이익추구 등 사업목적에 맞는 명분을 찾아 설득할 수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의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Q. 당선이 되면 꼭 하고 싶은 일 3가지는?

- 제가 선행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인구소멸위기에 대응하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인구정책은 출산장려, 정주여건 개선 등의 복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정책임을 강조하며, 사람이 모이는 인구도시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고속철도 개선 등 교통접근성을 개선하고, 농촌체류형 주택단지 건설, 체험관광 등을 통한 생활인구 증가를 유도하는 인구정책의 전환으로 도시의 활력을 되찾는 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기본소득이 가능한 경제도시에 대한 구상입니다.

기업유치와 지역특성을 살린 성장 사업 발굴을 통해, 남원 인에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임을 밝히며, 청년이 떠나지 않아요 되는 남원에서 기술과 농업, 관광과 지역산업이 연결되는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갖추겠다는 것이 경제도시에 대한 구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시장의 청렴과 신뢰 해결의 문제와 관련, 공무원 조직의 실행력을 높이고 효과분석의 기능을 재정비하는 시스템 개혁을 통해 목표달성 중심의 행정체제로 개편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유권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이제 남원은 보여주지 못할 도시가 아니라, 남원의 가치를 재발견해, 시민의 삶이 나아지는 도시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경제가 근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가 살아야 시민들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야 재정이 회복되며, 이를 바탕으로 시의 모든 행정이 제대로 작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남원의 발전 방향은 복지, 개발사업, 행정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중심으로 남원의 구도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는 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책의 후퇴의 길이 아니라, 대전환과 대도약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이 방향을 설정하면, 그 길을 설계하고 끝까지 완수할 것입니다.

이제명 대통령이 선포한 '국민주권정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길이 새기고 있습니다.

당연히 남원시장의 모든 권력은 미심으로부터 비롯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은 단순한 행정의 수요나 권력의 물러리가 아니라, 정치와 행정권력을 만드는 힘의 원천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곧 시정입니다.

남원시의 시민주권시대를 열어가는 경제시장, 양충모가 시민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10만호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